

흙사랑 물사랑

2026. 9+10월호

KF 한국농어촌공사
Clean & Green





목차



미래를 여는 이야기

- 04 **농정산책**
귀농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농지은행'
- 06 **KRC의 발견**
천년의 시간을 품은 물의 정기
의림저수지
- 08 **농어촌 특색**
토양별 맞춤형 처방 지원
흙토람
- 10 **흙길따라 농(農)길따라**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 우리가 인증합니다
KRC 농촌공간계획처 농촌공간디자인부
BF인증팀



현장에서 만나는 미래

- 14 **KRC 우리는**
칭찬을 부르는 진심의 힘
KRC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수자원관리부 김태우 사원
- 18 **행복농어촌 만들기**
행복을 나누는 '동화' 같은 마을
장성군 동화면



미래를 가꾸는 문화

- 22 **농어촌 재발견**
오래된 공장에서 피어나는 예술
팔복예술공장
- 24 **계절 미식**
달큰하고 칼칼하게, 가을 한 그릇
단호박 수제비
- 26 **바른말 띄움**
아는 말도 다시 보자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



농어촌 소식함

- 27 **KRC 헤드라인**
한국농어촌공사 주요 소식 3건
- 28 **알려드립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 30 **공감스토리**
KRC SNS + 2026 만족도 조사
- 31 **독자마당**
7+8월호 독자 의견·퀴즈 당첨자
9+10월호 퀴즈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친구 추가

- STEP 1 카카오톡에서 '농어촌드림' 검색 또는 QR코드를 통해 채널 추가
- STEP 2 1:1채팅방 클릭
- STEP 3 게시글 '좋아요'까지!

귀농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농지은행’

1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부부의 세상은 아스팔트와 빌딩 숲이었다. 남편은 거제와 해외를 오가며 회사의 신사업에 청춘을 바쳤다.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삶이었다.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바쁜 일상 속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다복한 가정을 일구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이 남편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을 보며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마침 먼저 귀농해 있던 시부모님의 권유로 남편은 건강하고 아늑한 삶을 찾아 보령에서의 ‘두 번째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흙내음 가득한 농촌 생활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경제적 기반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삶의 터전을 통째로 바꾼다는 것은 남편에게 큰 부담이었다. 축산 규모가 커질수록 농지 확보는 필수였지만, 빚을 내 축사를 운영하는 형편에 땅을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었다. 퇴비 처리 업체에 계약금을 떼이고,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사료 값에 허덕이면서 농장 경영에도 점점 먹구름이 드리웠다. 토지, 자본, 노하우, 인맥 중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 부부는 때때로 낙담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렇게 남편은 보령에서 농장을 꾸리고,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 부부로 고군분투했다. 그 사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는 점점 커졌지만, 정작 농장은 발전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이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나도 무작정 농장으로 들어갔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었지만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갈림길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농지였다. 남편은 농지를 구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네는 외지인이라 경쟁이 어려워”라는 마을 어르신들의 조언뿐이었다. 남편의 힘없이 처진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빌려 농지를 확보하려 해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제시받거나 “외지인이 농지 값을 올려놓는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연이은 실망 속에서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농지은행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를 찾았을 때 담당자분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우리에게 꼭 맞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이라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농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담당자분은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사료작물 재배에 적합한 농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해당 농지 소유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 등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우리가 찾은 농지 소유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등 우리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공사의 도움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먼저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해 주고, 이후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해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가격결정 방식이다. 최장 30년 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농지를 매수할 때,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매도시점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니, 당장 목돈이 부족해 땅을 사지 못했던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그날, 내 명의로 첫 농지 계약서를 쓰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농지은행은 우리 가족이 보령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8년의 주말부부 고비와 무모했던 귀농 초기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복(多福)하게 흙을 딛고 서 있다. 우리의 귀농은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

귀농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농지은행의 문을 두드리시라. 그곳의 직원들은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미래가 막막한 청년농업인에게 우리 부부가 꼭 알려주고 싶은 비밀은 이것이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물의 정기 의림저수지

제천에는 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곳이 있다. 바로 의림저수지다. 그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용두산의 물을 막아 독을 쌓은 것이 시초라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주변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곳을 찾았다면 영호정과 경호루, 수백년 된 소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맑은 솔향을 머금은 숲길을 지나 잔잔한 수면 앞에 서면, 천년의 세월을 품고 흐르는 '물의 정기'가 가만히 전해지는 듯하다.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숫자로 본
의림저수지



전체 유역 면적

750_{ha}



수해 면적

197_{ha}



총 저수량

501_{천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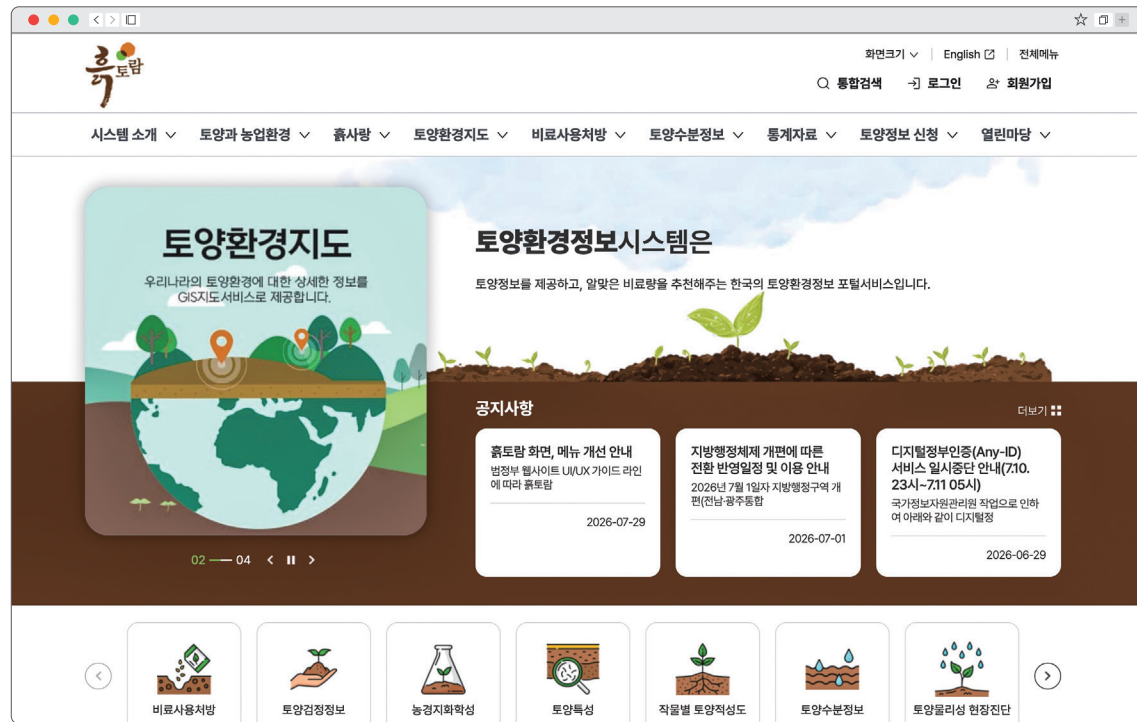
제방 높이

15_m



토양별 맞춤형 처방 지원 흙토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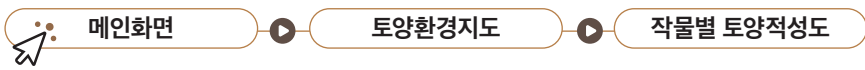
‘흙토람’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토양의 정보를 열람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의 토양 조사·연구 결과와 농업환경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업인은 물론 일반인도 필요한 토양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토양환경정보 포털이다.



★ Check Point 1 내 땅에는 어떤 작물이 잘 자랄까?

작물별
토양적성정보
확인 방법

흙토람에서는 사과, 배, 포도, 딸기, 토마토, 오이, 배추 등 100여 개 작물의 토양적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토성, 배수등급, 자갈함량 등 토양특성과 환경요인을 종합해 농경지를 최적지·적지·가능지·저위생산지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내 농경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작물이 재배에 더 적합한지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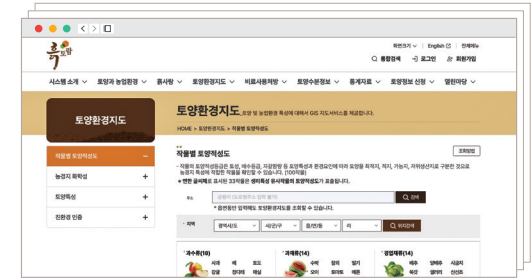
★ Check Point 2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주요 정보
제공

흙토람에서는 토양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실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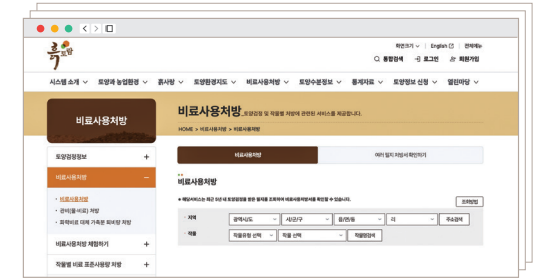


흙토람 바로가기
[<https://soil.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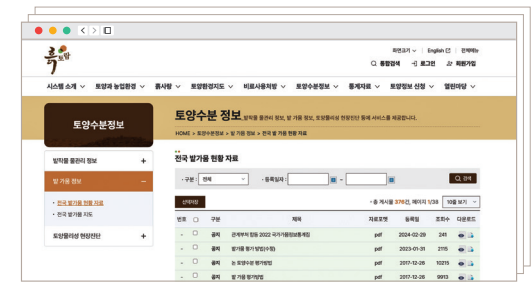
토양환경지도

지역별 토양정보를 지도 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를 비롯해 농경지의 pH·유기물·유효인산 등 화학성 정보와 토양지형·토양분류·토지이용 등 다양한 토양특성, 친환경 인증 현황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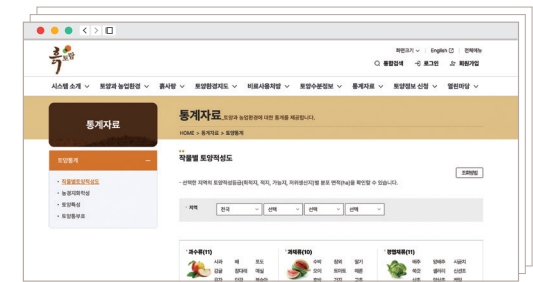
비료사용처방

토양검정 결과와 필지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물 생육에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추천한다. 재배할 작물을 선택하면 필요한 비료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과 작물영양진단 등의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토양수분정보

노지 밭 물사용 처방과 밭작물 물관리 지침서 등을 통해 작물과 토양에 따른 효율적인 물 관리를 돕는다. 전국 밭가뭄 현황과 지도, 토양물리성 현장진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농경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통계자료

작물별 토양적성도와 농경지 화학성, 토양특성 등의 정보를 통계자료로 조회할 수 있다. 지역별 토양환경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하고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01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넘는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된다. 계단 한 칸, 출입문의 폭 몇 센티미터, 점자블록 하나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편리한 공간은 이처럼 작고 세심한 차이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부터 현장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KRC BF인증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특별한 현장을 따라가 봤다.

생활 속 보이지 않는 문턱을 낮추는 사람들

건물 출입문의 폭, 계단 한 칸의 높이.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시설 곳곳에는 누군가의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숨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동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Barrier Free, 이하 BF)’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1. BF인증 심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BF인증팀

02. 내부시설의 계단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모습



11

02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 BF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BF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담 조직 운영과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전문성을 높였으며,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농촌지역의 BF 확산에도 힘써왔다.

그 중심에는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BF인증팀이 있다. 이들은 BF인증 신청부터 서류 검토, 심사, 현장 확인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도면과 서류는 물론 실제 이용자의 동선과 편의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단순히 기준에 맞는 수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 팀의 역할입니다.”

BF인증팀을 이끄는 박재구 농촌공간디자인부 부장의 설명처럼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03. 회의를 통해 BF인증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BF인증팀

모두의 편의를 위한 철저한 현장심사

지난 9월, BF인증팀은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복합문화센터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은 만큼 팀원들의 눈과 발걸음도 분주했다.

현장심사는 건물 밖에서부터 시작됐다. 접근로의 폭과 경사는 적절한지, 보행로는 안전하게 확보됐는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출입구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건물 안에서는 출입문과 복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화장실과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까지 점검이 이어졌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칠 작은 부분도 이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점검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이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가’를 넘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휠체어를 이용해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시각장애

인이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등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다시 살핀다. 작은 불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접근해 내부 시설을 이용하고 다시 나가기까지 전체 이동 동선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도면에서부터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핀 끝에 공간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BF인증 업무의 큰 보람이다. 임재현 BF인증팀 차장은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느끼는 어려움보다 변화된 공간을 마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더 크다고 말한다.

“나주를 기반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누비다 보니 긴 이동 거리와 오랜 운전으로 체력적인 부담도 있지만,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때마다 그 피로를 잊곤 합니다.”

도면 속 작은 숫자 하나부터 현장의 문턱 하나까지. BF인증팀의 세심한 시선과 발걸음이 닿을수록 우리 주변의 문턱은 조금씩 낮아지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은 한 뼘 더 넓어지고 있다.

04. 안내시설의 높이와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는 모습

05. 위생시설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모습

0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직접 살펴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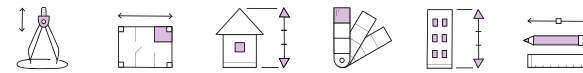
Mini Interview



"고객과 소통하며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재구
농촌공간디자인부 부장

BF인증은 단순히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KRC가 만들어가는 더 편리하고 포용적인 농어촌 공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증을 준비하는 현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승엽
BF인증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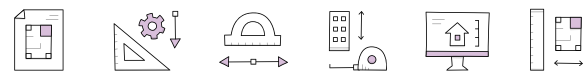
BF인증을 단순히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업무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인증을 준비하는 기관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심사 경험과 사례를 축적·공유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설계 단계부터 BF인증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BF인증이 좋은 건축환경을 만드는 기본 요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임재현
BF인증팀 차장

BF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KRC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인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완성도 높게 추진되도록 돕겠습니다. 나아가 고령화되는 농어촌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연구해 온 기준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김민경
BF인증팀 박사

오랫동안 대학과 사무소에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을 연구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BF인증 업무를 통해 인증 기준이 실제 건축물로 완성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칭찬을 부르는 진심의 힘

KRC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수자원관리부

김태우 사원

부안지사에 어느 날 반가운 푸드트럭이 찾아왔다. 고소한 핫도그 냄새에 웃음이 피어나고, 서로를 향한 응원까지 더해진 유쾌한 시간. 과연 부안지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함께여서 더 든든하고 즐거웠던 부안지사의 기분 좋은 하루를 만나봤다.



농어촌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부안지사

서해를 향해 힘차게 뻗은 변산반도를 품은 부안. 산과 바다, 숲과 사찰,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수산자원은 물론 새만금이 라는 미래 성장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부안지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농업인이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관리,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공간개발 등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

“부안은 농업뿐 아니라 새만금과 변산반도, 해양·어촌자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어촌뉴딜과 농촌중심지사업 등 여러 농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부안지사 지사장의 말처럼 부안지사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가능성을 하나로 연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한창이던 부안지사 앞에 푸드트럭이 찾아왔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평소 조용하던 지사 앞에 푸드트럭이 등장하자 직원들은 하나둘 관심을 보였다. 푸드트럭이 찾아온 데에는 반가운 사연이 숨어 있었다.



01. 부서 회의하는 모습

02. 맡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김태우 사원

오래 묵은 민원에 답을 찾다

얼마 전 KRC 상상알리오 칭찬게시판에 김태우 사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사연의 시작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용수로 문제였다. 노후화된 콘크리트 용수로 곳곳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새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 오랜 시간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게는 하루빨리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태우 사원은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동료들과 해결 방안을 고민한 끝에 용수로 하부를 시멘트로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준 김태우 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직접 칭찬 글을 남겼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께서 많이 답답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우선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저 혼자 해결한 것은 아니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 분들과 고민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죠.”

칭찬의 주인공이 된 소감을 묻자 김태우 사원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움직였던 점을 고맙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03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칭찬게시판에 김태우 사원의 이름이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도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직원으로 통한다. 민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무엇이 가장 답답할까?' 김태우 사원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다.

"여러 상황과 제약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부분은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신뢰'다. 당장 모든 문제에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김태우 사원은 그곳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함께 일하는 방혁주 수자원관리부 부장도 그의 강점으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태도를 꼽았다.

"김태우 사원은 자기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고 먼저 도움을 건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직원이라 동료들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핫도그 한입, 웃음 한가득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이날 부안지사 모두의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푸드트럭에서 노릇노릇 갓 튀겨낸 핫도그 냄새가 퍼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밖으로 모여들었다. 한 손에는 핫도그, 다른

진심 어린 소통으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가는 김태우 사원



04

한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서 업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사무실에서 먹는 간식과는 또 다르네요."

"다 같이 푸드트럭 앞에 모여 음료와 간식을 나눠 먹으니 기분 전환도 되고 재미있어요."

누군가는 핫도그 맛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옆자리 동료에게 음료를 건넸다. 평소 바쁜 업무에 미처 묻지 못했던 안부도 자연스럽게 오갔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함께 먹고 웃는 사이 동료 간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풍경은 어쩌면 부안지사가 일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혼자 답을 찾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는 이들이 있기에 부안지사는 오늘도 농업인이 행복한 농어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05

03. 푸드트럭 앞에 모인 부안지사 직원들
04. 핫도그와 음료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05.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직원들



Mini Interview

17



칭찬
주인공

김태우
수자원관리부 사원

이번 칭찬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작은 업무 하나하나가 KRC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와 고객 모두에게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광희
부안지사 지사장

올해 부안지사는 남부지역 가뭄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고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먼저 챙기고 힘이 되어주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온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함께 힘을 모으는 든든한 부안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혁주
수자원관리부 부장

한 사람의 밝은 태도와 배려는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먼저 돕고 응원하는 모습이 모여 지금의 부안지사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힘이 되어주며,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부안지사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동화 같은 마을

장성군 동화면

한때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던 동화면.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만들고, 서로 다른 국적과 세대의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는 활기찬 마을로 변신했다. 주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며, 그 즐거움을 다시 이웃과 나누는 곳. 이름처럼 ‘동화 같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01

함께 어울리며 ‘동화’를 쓰는 마을

동화면은 농촌과 산업 현장이 공존하는 조금 특별한 마을이다. 장성군 최초로 농공단지가 들어선 이후 산업 근로자가 유입됐고,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귀농·귀촌인까지 새로운 이웃으로 합류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농촌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인다고 저절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 10명 중 9명이 문화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할 만큼 문화시설과 생활SOC가 부족했고, 인구 감소와 중심지 쇠퇴까지 겹치며 마을의 활력도 조금씩 떨어졌다.

그때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바뀌보자’라는 마음이 모였고, 2016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계기로 문화센터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문화센터는 흩어져 있던 주민을 한데 모으고 문화와 복지, 교육을 연결하는 ‘마을의 구심점’이 됐다. 그 노력은 ‘제12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금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담당 공무원 조영훈 주무관은 원동력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력’을 꼽는다.

“지역 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역,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주민 주도형 농촌활성화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문화생활을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던 곳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즐길 거리와 문화를 만드는 곳으로. 동화면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02



03

- 01. 꿈드림문화예술학교
- 02. 동화면문화센터 전경
- 03. 동화면 체육공원

다름이 어울림이 되는 곳

1,800여 명이 살아가는 동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다채롭다. 농공단지 2곳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일 만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동화면은 이러한 ‘다름’을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문화센터의 문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었다.

문화센터에서는 날마다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 농업인과 근로자는 요가와 라인댄스로 지친 몸을 풀고, 어르신들은 노래교실과 약초교실에서 활력을 찾는다. 귀농·귀촌인과 젊은 세대는 어반스케치와 난타, DIY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이웃과 가까워진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문해교실과 전통문화 체험도 마련돼 있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한 공간에서 만나고 웃는 시간이 늘자 관계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인사조차 어색했던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됐다. 주말이면 인근 도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문화센터가 북적인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배우는 사이 '다름'은 조금씩 '어울림'으로 바뀌었다. 국적도, 세대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모두가 '동화면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06

연결된다. 여러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일상을 나누는 마을. 그렇게 동화면에서 '우리'라는 말의 울타리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 04.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05. 농공단지 MOU 체결
- 06.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라인댄스 등)



05



04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의 선순환

동화면의 진짜 힘은 문화센터를 채우는 주민들에게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고 그 결실을 다시 마을에 돌려준다. 한 사람의 참여가 또 다른 참여를 부르고, 작은 나눔이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1년 동안 갈고닦은 솜씨는 '동화나라 큰잔치'에서 빛을 발한다.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은 신나는 난타 공연을 선보인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버베나축제'도 동화면의 새로운 자랑거리다. 볼거리와 축제가 부족했던 마을에 주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즐거움과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화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배후마을에는 문화가 직접 찾아간다.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를 통해 공연과 칼같이, 생활강좌 등을 제공하고, 출향민이 기증한 차량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다. 센터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도 마을 안에서 선순환한다. 헬스장 이용료와 강의실·운동장

대관료 등으로 자체 수익을 마련하고, 이를 무료 카페와 김장·떡국 나눔, 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동화면의 시선은 이제 더 촘촘한 복지를 향한다.



07. 버베나축제 포스터



08. 배후마을 프로그램(칼같이 봉사)

이윤복 동화면 운영위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이웃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동화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라고 말한다. 주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고, 그 결실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마을. 오늘도 동화면에서는 이름처럼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장성군 동화면문화센터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710
인구수(가구): 약 1,803명(800여 가구)
지역자원: 문화센터, 다목적광장, 체육공원, 배금산·동구산 쉼터, 주민 주도 축제(버베나축제, 동화나라 큰잔치),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기증 차량을 통한 배후마을 서비스 등

오래된 공장에서
피어나는 예술

팔복 예술 공장



녹슨 철문과 빛바랜 벽, 오래된 굴뚝 사이로 예술이 스며들면서 멈춰 있던 공장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옛 흔적은 작품이 되고, 버려진 공간은 전시장이 되고, 건물을 잇던 길은 예술을 만나는 길이 됐다. 과거의 시간을 지우지 않은 채 오늘의 감각을 덧입은 전주 팔복예술공장. 시간이 멈춘 공장이 예술을 만나 새롭게 살아난 흥미로운 현장이다.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공간

전주시 팔복동에 자리한 팔복예술공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녹슨 원기둥과 '쏘렉스'라는 옛 공장 이름이 적힌 굴뚝이 눈에 들어온다. 말끔하게 새로 단장하기보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모습에서 이곳이 지나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한때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며 수많은 노동자가 오가던 공장은 1990년대 초 문을 닫은 뒤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그러다 2018년, 예술이라는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며 문화예술 플랫폼 '팔복예술공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팔복예술공장은 A·B·C동으로 나뉜다. 중심이 되는 A동에서는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고, B동에는 유아예술놀이터와 야외놀이터,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등이 자리한다. C동에는 영상에 숏터가 마련돼 있다. 특히 낡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며 A동과 B동을 잇는 붉은색 컨테이너 브리지는 오래된 공장 건물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을 완성한다.

건물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깨진 벽과 벗겨진 페인트를 애써 감추지 않고 그 사이 사이에 그래피티 등 현대적인 작품을 자연스럽게 들였다. 오래된 것을 걷어내는 대신 그 위에 오늘의 감각을 포개 켜는 것이다. 덕분에 낡은 벽 하나, 오래된 문 하나도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다. 공장이 간직한 시간과 새로운 감각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풍경은 팔복예술공장을 즐기는 첫 번째 재미다.

보물찾기하듯 만나는 예술

팔복예술공장의 본격적인 관람은 A동 2층에서 시작해보자. 세 개의 전시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동시대 예술의 실험과 창작'이라는 팔복예술공장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전시실을 벗어나도 관람은 계속된다. 과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했던 화장실에는 유진숙 작가의 작품 '하루'가 자리한다. 변기마다 카세트테이프와 길게 풀려나온 테이프가 가득한 모습은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01. 팔복예술공장 전경
02. 영상예술터
03. 팔복예술공장 전시실

직접 예술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팔복야호예술놀이터'에서는 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예술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국내외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도 운영해 현재 7명의 입주작가가 작업하며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과 '카페 씨니'는 관람 중 잠시 머물며 책을 읽거나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다.

전시를 보고, 계단을 오르고, 곳곳에 숨어 있는 작품을 찾아 보면 어느새 공장 전체를 탐험하게 된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과는 또 다른 재미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건물을 자유롭게 거닐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품과 마주하고, 오래된 공장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보물찾기하듯 하나씩 발견하는 즐거움이야말로 팔복예술공장을 가장 흥미롭게 만나는 방법이다. 주말이면 팔복예술공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인근 농촌지역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달큰하고 칼칼하게,
가을 한 그릇

단호박수제비



자연을 담은 엄마의 Recipe

주재료(4인분 기준)

단호박 1/2통(300g)
밀가루 1컵+1/2컵
소금 1작은술+1/2작은술
냉이 50g
애호박 1/2개
쪽파 10대
맛국물 1.5ℓ
고추장 1큰술
초피액젓 3큰술

단호박은 곱게 갈아 부드러운 죽을 끓여도 좋고, 버터와 생크림을 더해 고소한 수프로 즐겨도 좋지만, 사실 찜기에 넣고 포슬포슬하게 찌 먹는 것만으로도 참 달다. 오죽하면 이름에 '단'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데다 영양도 풍부하다. 단호박의 달큰함에 고추장의 칼칼함을 더하고 쫄깃한 수제비를 넣은 '단호박 수제비'로 제철의 맛을 한 그릇 가득 즐겨보자.

요리방법

- 1 단호박은 껍질을 벗긴 다음 속을 파내고 삶아 으갠다.
- 2 단호박에 밀가루와 소금을 넣어 충분히 치대어 비닐백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30분 정도 숙성시킨다.
- 3 냉이는 다듬어 씻어 송송 썰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 4 큰 냄비에 맛국물, 고추장, 초피액젓을 넣고 끓이면 반죽을 얇게 손으로 떠 넣어 익히다가 냉이, 애호박, 쪽파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비밀 팁 — 초피액젓이 없다면 집간장으로 대신해도 좋다.



출처 배명자, 『자연은 담은 엄마요리』, 상상출판(2021)

『자연은 담은 엄마요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차려낸 204가지 건강 음식을 담은 시골 엄마표 레시피북이다. 이 책에는 상추 물김치, 유채꽃 샐러드, 가지 탕수, 생된장 비빔밥, 검은콩 청국장가루 드레싱처럼 자신들을 위해 소박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궁리하다 탄생한 창의적인 메뉴들이 가득하다.

+ 아는 말도 다시 보자 +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

매일 쓰는 말인데도 막상 글로 옮기려면 “어,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있다. 특히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외래어는 익숙하게 들리는 대로 썼다가 틀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평소 헛갈리는 표현을 하나씩 짚어보며 제대로 쓰는 법을 알아보자.



외래어 표기법의 다섯 가지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Q 헛갈리는 외래어, 올바른 문장으로 완성해보세요

1 점심을 먹고 (카페 / 까페)에서 커피 한잔할까요?

〈설명〉 외래어를 적을 때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까페’가 아니라 ‘카페’로 적는다. 같은 원칙에 따라 ‘빠리’가 아닌 ‘파리’, ‘빠스’가 아닌 ‘버스’로 표기한다.

2 경기 시작 전 다 함께 (화이팅 / 파이팅)을 외쳤어요.

〈설명〉 힘내라는 뜻으로 ‘화이팅’과 ‘파이팅’을 흔히 함께 쓰지만, 표준 외래어 표기는 ‘파이팅’이다. 영어 ‘Fighting’의 첫소리 [f]는 우리말에 똑같이 대응하는 소리가 없으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ㅍ’으로 옮겨 적는다.

✔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외래어	우리말	이렇게 바꿔보세요
콘셉트	개념, 주제, 방향	이번 행사의 콘셉트 → 이번 행사의 주제
레시피	조리법	간단한 레시피 → 간단한 조리법
시푸드	해산물	시푸드 요리 → 해산물 요리
미팅	회의, 만남	오전 미팅 → 오전 회의
프로젝트	사업, 과제	연구 프로젝트 → 연구 과제

오늘의 띄움

너그럽다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끝을 배에 대고 양옆으로 벌립니다.



정직하다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오른 주먹이 위에 놓이게 배에 대고 오른 주먹을 위로 올립니다.



KRC HEADLINE

2026. 9+10월호



‘국정이음 테마회의’서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모색

한국농어촌공사(KRC)는 지난 9월 1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KRC)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과 연계해 ‘균형성장’을 주제로 열렸다. 김인중 사장과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를 비롯해 배승중 서울대학교 교수, 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동청주농협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종합토론과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으로 진행됐다.



‘농어촌정비법’ 9월 11일 시행...
배수개선·용수개발 등
국가지원 대상 확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은 30~50ha 규모 농경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수혜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낮아지고,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KRC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규 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 패트롤카(순찰차)’
전국 확대

KRC는 지난 9월 7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KRC 안전 패트롤 카(케이알시 안전 순찰차)’를 전국 8개 지역본부로 확대했다.

‘KRC 안전 패트롤카’는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점검 수단이다. 지난 3월 본사에 1대를 배치해 운영한 결과, 8월까지 작업 중지 5건과 시정조치 20건을 실시했다.

공사는 이번엔 8개 지역본부에 순찰차를 1대씩 추가 배치해 총 9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불시점검과 지역별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핵심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험 공중에 대한 안전조치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8

추진 배경 및 목표

추진 배경

농지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농업인의 일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투기는 가려내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는 농지제도 개편·생산성 향상·농업 세대전환에 활용합니다.

농지제도 개편

전수조사로 파악된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농지제도 개편 및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지정책 수립에 활용

-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는 임대차·휴경 허용사유 확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
-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시설은 농업용 시설 등 양성화 조치
- 식량안보 목표 고려한 적정농지 확보·보전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2/8

추진 배경 및 목표

농지 생산성·활용도 제고

우량농지는 집적·규모화로 생산성 제고, 방치되던 농지는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

- 생산성 향상: 건별로 매입·임대하던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 DB를 토대로 집적·규모화, 공동영농 촉진
- 활용도 제고: 방치·저활용 농지의 대체소득 확보 방안(대양광 등) 검토

농업의 세대전환

농지은행 역할을 강화하여 고령농의 농지 현금화·유동화 지원, 청년농 농지 공급 등 원활한 농업 세대전환 추진

- 고령농: 공공 매입, 정상화 조치에 따른 농지은행 임대위탁 확대, 농지연금·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 제공
- 청년·전입농: 전수조사 후 농지은행에 위탁된 공적 활용 농지 풀(pool)을 토대로 청년층의 농업 진입과 전입농의 규모화에 필요한 농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3/8

조치 방향

1. 투기 엄단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2. 대안 조치

그 외 위반 사항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양성화 기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4/8

조치 방향

중대한 위법 사항은 농지법 원칙대로 처분 등 조치

투기 유형

실제 농사지를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회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

거짓·부정한 농지취득자격을 명시 발급에 의한 투기 등으로 인정될 경우 처분명령 부과

중대한 불법 전용 유형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아파트·아파트 등)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

원상회복 명령

농림축산식품부 5/8

조치 방향

관행 및 경미한 위법 사항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화·양성화 조치

*전수조사 사후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유 관련 상속·이농 등으로 소유 상한(ha)을 초과한 경우 ↓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전용 관련 지목 변경·사후 전용추진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휴경 관련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 희망 시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 유예 ↓ 명지·경사지 등 자진복구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필요 시 복구·임대 등을 검토	임대차 관련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처분 유예 및 정상화 ※ 고령 경작, 부모가 장애 후 계속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등

불법 전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사후 전용 추진하여 양성화

※ '26.5.18. 이전 완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6/8

향후 추진 계획

법령 제·개정

전수조사 이후 국민·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법 전용 농지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지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안) : '26.12월 특별조치법 제정안 마련·국회 의결 → '27.1분기 시행 및 세부 지침 마련 → '27.2분기 농지법 개정안 발의

예산

농지은행 역할 강화와 농지 활용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7/8

농지 전수조사

투기는 근절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8/8

#KRC SNS



b 블로그



농지전수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농지법 #농지정책 #농지은행



f 페이스북



농경지를 적시고 철새를 품은 곳,
창원 주남저수지

#주남저수지 #수(水)토(土)리 #철새도래지



ig 인스타그램



지켜주세요, 나의정보!
실천하세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캠페인 #정보보안 #나주혁신도시



yt 유튜브



캠프와 함께하는
드론·인공지능 농지조사

#캠프 #인공지능 #농지관리 #디지털혁신

2026년 <흙사랑 물사랑> 만족도 조사

<흙사랑 물사랑>은 보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발전된
매거진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6년 11월 1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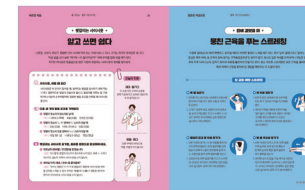
만족도조사
바로가기

7+8월호 독자 의견



김*우
농정산책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농정산책>에 절로 눈길이 갔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농촌의 풍경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농성 들어 키우고, 누군가 그걸 먹어주면 좋지 않나?”라는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이*주
바른말 퇴음

글을 쓸 때마다 사이시옷이 헛갈려 사전을 찾아보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몇 번이고 내리 읽으며 외우다시피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더욱 유익했습니다.



정*영
농어촌 재발견

덧밭 농사를 지어보니 물은 논밭을 적시는 자원을 넘어 생명을 키우는 힘이라는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한 줄기 물이 백 갈래 생명줄이 되어 농촌을 키워온 역사를 품은 ‘일원종시백피비’가 잘 보존되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퀴즈 정답

퀴즈의 정답

② 일원종시백피비

당첨자

배달의 민족 5만원권

전*윤 9350 이*엽 9373

투썸플레이스 5천원권(20명)

김*현 1607 김*홍 8237

김*훈 1662 김*아 9688

양*민 9122 김*희 1792

전*자 2993 고*주 6090

김*섭 1342 강*일 8835

민*삼 2187 김*수 5601

이*훈 3867 서*하 3215

황*주 1276 임*초 8031

김*혁 2649 설*준 2532

한*경 2012 이*준 0215

<흙사랑 물사랑>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답자 중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상품 지급일: 10월 12일(월)

퀴즈 이벤트

문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① KS인증제도 ② 녹색인증제도 ③ GS인증제도 ④ BF인증제도

참여 방법 QR코드 접속 후 퀴즈 정답 제출

참여 기간 10월 8일(목) ~ 11월 20일(금)

이벤트 경품 배달의 민족 5만원권(2명), 투썸플레이스 5천원권(20명)



이벤트 참여